

“나라”에 대한 칼빈의 이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국가¹⁾



황대우(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늘 나라로 불러모으시기 때문에,²⁾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³⁾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데, 그 시작은 삶의 갱신이지만 그 마지막은 복된 불멸이며 하늘 영광이다.⁴⁾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늘나라를 “경건한 자들의 나라”(piorum regnum)라 칭하는데,⁵⁾ “그들의 나라와 영광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요,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신적 영광의 참여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아직 도래하지

1) 이 글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2002), 273-283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2012년 7월 7일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칼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 OS I, 86 (= CO 1, 72. 기독교강요 1536). 라틴어 “regnum”은 “왕국”이나 “제국”, “국가”, 또는 “나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나라”로 이해하고 번역했다. “regnum”은 “왕”을 의미하는 “rex”에서 파생되었으며 이 단어 역시 “조종하다”, “인도하다”, “다스리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rego”에서 파생되었다.

3) OS IV, 7 (= CO 2, 397. 기독교강요 III.2.1.): “... fides ..., per quam regni caelestis possessionem adeunt quicumque adoptati sunt a Deo in filios: ...”

4) CO 48, 568 (사도행전주석 28:21-23): “... , necesse fuit rectam definitionem constitui, ut scirent spirituale esse regnum Dei: cuius initium esset vitae novitas, finis autem beata immortalitas et coelestis gloria.”

5) OS III, 418 (= CO 2, 325. 기독교강요 II.10.17.).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는 있는 것이다.”⁶⁾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매일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종말론적인 실체이다.⁷⁾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시작은 중생이요, 마지막과 완성은 복된 불멸인데, 그 둘 사이의 발전은 중생이 더 넓게 전진하고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기”⁸⁾ 때문이다.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 즉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종말론적인 실체는 지상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⁹⁾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머나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라는 비록 이 세상에서 기원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활짝 핀다.(고전 1:21; 요 17:14; 18:36; 롬 14:17)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그 나라가 영적이요, 영적인 일들을 구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며, 그 다음 이유는 그

6) CO 5, 212 (=W. Zimmerli (ed.), *Psychopannychia*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32), 79): “Quorum regnum est et gloria in regno dei glorioso esse et cum deo veluti regnare et in eo gloriari, denique divinae gloriae participes esse. Hoc quidem regnum, tametsi nondum advenisse dicitur, tamen aliqua ex parte spectare licet.”

7)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CO 6, 97 (OS II, 121sq = CO 6, 98).

8) CO 48, 4 (사도행전주석 1:3): “Huius regni initium est regeneratio: finis ac complementum, beata immortalitas: medii progressus sunt in ampliore regenerationis profectu et augmento.”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그의 교회개념 속에는 어떤 긴장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확장과 성장은 어떤 점에서도 긴장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두 국면의 통일성과 연속성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지금 여기서 미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지, 두 국면 사이에 모종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상적인 삶은 약속된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성장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다. Contra T.F. Torrence, *Kingdom and Church: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 (London: Oliver and Boyd, 1956), 110 & 134: “It is this tense relation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at gives Calvin his characteristic *nuance* in eschatology:...” & “This correlativity between Church and Kingdom, however,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eschatological tension and reserve involved in the overlap of the two ages, ...”

나라가 불멸하고 영원하다는 것 때문이다.”¹⁰⁾

칼빈에 따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옛 사람의 죽음과 자기부인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우리가 거듭나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¹¹⁾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의에 종속시킬 때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참여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이기 때문이다.¹²⁾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방법, 즉 “일부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일부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시길 원한다. 하지만 성령의 내적 능력이 부재할 경우 단순한 목소리만으로는 마음을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둘이 각기 동시에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이 그분께 기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¹³⁾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부에 있다.”¹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의 통해 인도하시는 자신의 택자들 속에 이미 지금 다스리신다.”¹⁵⁾

10) OS I, 109 (= CO 1, 93. 기독교강요 1536): “... regnum in hoc quoque mundo florere, etsi ex hoc mundo non est (1 Cor. 1. Ioan. 17. 18. Rom. 14), primum, quia spirituale rebusque spiritualibus constans, deinde, quia incorruptibile ac aeternum (Luc. 1. Dan. 7).”

11) CO 45, 197 (마태복음주석 6:10): “... , initium regni Dei in nobis esse veteris hominis interitum et nostri abnegationem, ut renovemur in aliam vitam. ”

12) OS IV, 353 (= CO 2, 667. 기독교강요 III.20.42.): “Haec enim regni Dei conditio est, ut dum nos subiicimus eius iustitiae, gloriae suae consortes reddat. ”

13) CO 45, 197 (마태복음주석 6:10): “Hoc [= Deum regere] autem fit partim verbi praedicatione, partim arcana virtute spiritus. Verbo suo gubernare vult homines, sed quia nuda vox, nisi accedat interior vis spiritus, usque in corda non penetrat, coniungi utrumque simul oportet, ut stabiliatur Dei regnum. Precamur ergo, ut suam Deus potestatem exserat tam verbo quam spiritu, ut se illi ultro totus mundus subiiciat. ”

14) OS III, 476 (= CO 2, 364. 기독교강요 II.15.4.): “... regnum Dei intra nos est. ...”

15) CO 5, 212 (=W. Zimmerli, (ed.), *Psychopannychia*, 79): “Regnat igitur deus iam nunc in electis suis, quos agit spiritu suo.” 참조, OS I, 407 (= CO 22, 63. CO 5, 346): “Le regne de Dieu est de conduire et gouverner les siens par son Saint Esperit, ...”

“하늘 나라는 바로 내적이고 영적인 갱신이다. 교회의 갱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로 하여금 천상적인 새로움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들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다.”¹⁶⁾ 이런 것들을 근거로 칼빈은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교회의 새로운 상태”,¹⁷⁾ 즉 “교회의 갱신” 혹은 “교회의 두 번째 상태”로 해석한다.¹⁸⁾ 칼빈에 따르면 하늘 나라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선택된 값비싼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성전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이다.¹⁹⁾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영생의 참여자이며 희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제네바 개혁가에 따르면 교회와 공동체도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뿐이다.²¹⁾ 하나님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in persona Christi) 친히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합당한 질서는 바로 하나님만이 지휘권과 통수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이

16) CO 45, 424 (누가복음주석 17:20): “... quando nihil aliud est nisi interior et spiritualis animae renovatio: ... Intus quaerenda est, quam Deus promisit, ecclesiae instauratio: quia, electos suos in coelestem novitatem vivificans, suum in ipsis regnum erigit.”

17) CO 45, 303 (마태복음주석 11:11): “*Regnum coelorum et Dei pro novo ecclesiae statu capitur, ...*”

18) CO 45, 172 (마태복음주석 5:19): “*Regnum coelorum pro ecclesiae renovatione accipitur, vel secundo ecclesiae statu, ...*”

19) CO 45, 595 (마태복음주석 21:42): “... lapis sit [Christus] electus et pretiosus, qui ecclesiam Dei, regnum et templum sustineat.”

20) OS I, 63 (= CO 1, 51, 기독교강요 1536): “... quod ita illi inserti iam vitae aeternae quodammodo sumus participes, in regnum Dei per spem ingressi.”

21) OS I, 86 (= CO 1, 72, 기독교강요 1536): “... unam esse ecclesiam ac societatem et unum Dei populum ...”

다.²²⁾ 그러므로 참된 교회건설은 하나님 나라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²³⁾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regnum Dei)와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 그리고 “교회”(ecclesia)라는 이 세 용어를, 이들 사이에 뉘앙스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어로 생각하여 혼용한다.²⁴⁾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다.²⁵⁾ 하지만 부인 될 수 없는 사실은 그 나라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²⁶⁾ 칼빈이 이사야 60장 19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빛이란 교회 안에서만 떠오를 것이요, 따라서 교회 밖에서는 흑암과 어둠만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²⁷⁾ 칼빈은 아담으로 인해 닫혀버린 하늘 나라의 통로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여셨다고 이

22) CO 43, 200 (오바다주석 1:21): “Sed duo hic notanda nobis sunt, nempe quod vere dominetur in persona Christi Deus ipse: deinde quod hic sit legitimus ordo regendae ecclesiae, ut Deus solus praesideat, et imperium solus obtineat.”

23) CO 37, 270 (이사야주석 54:2-3): “Nam verum ecclesiae aedificium non aliud est quam regnum Dei: ...”

24) 참조. CO 49, 265 (로마서주석 14:17): “Nam quae vel ad erigendum, vel ad conservandum Dei regnum pertinent, nullo modo sunt omittenda, quaecumque tandem sequantur offensiones. Quod si ob caritatem cedere licet usu ciborum, illaeso Dei honore, salvo Christi regno, pietate inoffensa: ferendi non sunt illi, qui ob eos ecclesiam conturbant.” 비교. CO 48, 114 (사도행전주석 5:34). 칼빈에게 있어서 첫 두 용어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의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마지막 용어인 교회는 하늘 나라의 가시적이고 지상적인 차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곤 한다.

25) CO 47, 404 (요한복음주석 18:36): “Regnum enim Christi, ut spirituale est, ...”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데, 이와 같은 영적 나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Y.-B. Choi,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Leiden: J. J. Groen en Zoon BV, 1996), 197-207.

26) CO 47, 404 (요한복음주석 18:36): “... non negari quin sit in hoc mundo Christi regnum.”

27) OS III, 272 (= CO 2, 210, 기독교강요 II, 3, 1.): “Nam et ita de regno Christi vaticinatus erat Iesaias, quum Dominum Ecclesiae suae fore in lucem sempiternam promitteret: quum interim tenebrae obtegerent terram, et caligo populos [Iesa. 60, a. 2]. Quum in sola Ecclesia exorituram Dei lucem testetur: extra Ecclesiam certe non nisi tenebras et caecitatem relinquit.”

해한다.²⁸⁾ 즉 그분은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최초로 시작하셨다는 것이다.²⁹⁾ “그러므로 그분은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주심으로,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값없이 베푸시는 다양한 은사들로 자신의 교회를 장식하시고 자신의 보호하심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시며, 자신의 보호를 통해 모든 해들을 대적하여 [교회] 전체를 지키시고, 저 미쳐 날뛰는 원수들, 자신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의 원수들을 자신의 손 힘으로 제압하시고,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시는데,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원수들이요 우리의 원수들인 그들 모두를 땅에 던져버리시고 자신의 교회 건설을 완성하실 때까지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 나라의 참된 상태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권능인데, 이것은 그분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을 위해 오셔서 최종적인 행동을 성취하실 때까지이다.”³⁰⁾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육적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것으로 본다.³¹⁾ “그분은 아버지의 권능과 주권과 영광으로 다스리신다. 이 나라는 어떤 장소들의 공간들에 제한되지도 않고 어떤 차원들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자신의 능

28) OS III, 503 (= CO 2, 383, 기독교강요 II, 16, 16.): “... , Dominum suo in caelum ascensu aditum regni caelestis, qui per Adam praeclusus fuerat, aperuisse.”

29) OS III, 501 (= CO 2, 381, 기독교강요 II, 16, 14.): “... : sua tamen demum in caelum ascensione regnum suum vere auspicatus [Christus] est.”

30) OS III, 504 (= CO 2, 383, 기독교강요 II, 16, 16.): “In excelsis ergo sedet, ut transfusa inde ad nos sua virtute, in vitam spiritualem nos vivificet, ut Spiritu suo sacrificet, ut variis gratiarum dotibus Ecclesiam suam exornet, ut protectione sua tutam adversus omnes noxas conservet, ut ferocientes crucis suae ac nostrae salutis hostes manus suae fortitudine coerceat, denique ut omnem teneat potestatem in caelo et in terra: donec inimicos omnes suos, qui etiam nostri sunt, prostraverit, ac Ecclesiae suae aedificationem consummarit [Psal, 110, a. 1]. Atque hic verus regni eius status, haec potestas quam in eum contulit Pater, donec ultimum actum ad vivorum et mortuorum iudicium adveniens compleat.” 참조. CO 45, 686 (Comm. Mat. 25:31-46 en Luc. 21:37-38).

31) 참조. CO 48, 8 (사도행전주석 1:6): “... , quod ad carnalem Israellem restringunt Christi regnum, quod ad ultimos usque mundi fines propagandum erat.”

력을 하늘과 땅에 실행하신다. 오히려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오히려 항상 자신의 사람들을 도우시며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을 지지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활력 있게 하시며 보존하시되 마치 육체로 계실 때와 같이 하신다.”³²⁾ 성령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광범위하게 역사하신다.³³⁾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나라인 교회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스리신다.³⁴⁾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린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군복무를 완수한 후 승리[의 자리]에 초대 받을 때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 방법이란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⁵⁾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머리로서 자신의 몸이 교회를 다스리신다.³⁶⁾ “교회의 통수권은 머리이신 그분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

32) OS I, 142 (= CO 1, 123, 기독교강요 1536): “... in potentia, maiestate, et gloria patris regnat. Hoc regnum nec ullis locorum spatiis limitatum, nec ullis dimensionibus circumscriptum; quin Christus virtutem suam, ubicunque placuerit, in coelo et in terra exerat, quin se praesentem potentia et virtute exhibeat, quin suis semper adsit, in iis vivat, eos sustineat, confirmet, vegetet, conservet, non secus ac si corpore adesset.”; OS V, 364-365 (= CO 2, 1017, 기독교강요 IV.17.18.).

33) CO 49, 149 (로마서주석 8:15): “... benignius et largiore manu effusus est spiritus in regno Christi.”

34) OS I, 240 (= CO 1, 212, 기독교강요 1536): “In summa, cum ecclesia regnum sit Christi, regnet autem ille non nisi per verbum suum: ...”; OS V, 36 (= CO 2, 771, 기독교강요 IV.2.4.).

35) OS III, 476 (= CO 2, 364, 기독교강요 II.15.4.): “...: nam quia non terrenum [regnum Christi] est vel carnale, ..., sed spirituale, ad aeternam nos usque vitam attollit: ...: ... nunquam destituet nos Rex noster quin necessitatibus nostris subveniat, donec militia nostra perfuncti vocemur ad triumphum; quia talis est regnandi ratio ut communicet nobiscum quicquid accepit a Patre.”

36)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칼빈의 특별한 강조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K. Fröhlich, *Die Reich-gottesidee Calvins* (München: Verlag Christian Kaiser, 1932), 27sq.

나시는 곳에서는 그의 몸인 교회도 역시 통치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신의 지체들과 따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⁷⁾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

칼빈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섭리와 연결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극장으로서의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섭리의 최종목표는 세상 자체의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호에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 되심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되심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육신으로 계시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권능을 받으셔서 그분 홀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손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실행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불린다.”³⁸⁾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caput Ecclesiae)로 앉히시고 “만물의 경영권”(dispensatio omnium)을 넘겨주셨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신 것은 단지 영예뿐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경영권 둘 다 그분께 위탁 되었기 때문이다.”³⁹⁾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충만해 지기를

37) CO 44, 161 (스가랴주석 2:9): “... principatus ecclesiae est in capite ipso. Ubi ergo eminent Christus, tunc etiam dicitur ecclesia, quae corpus eius est, regnum obtinere. Christus enim nihil vult separatum habere a suis membris.”

38) CO 49, 432 (고린도전서주석 8:6): “Filius autem Dei quum manifestatus fuit in carne, dominium a patre et potestatem omnium accepit, ut solus regnet in coelo et in terra, ac pater suum imperium per illius manum exerceat. Hac ratione unicus vocatur Dominus noster.”

39) COE 16, 175 (= CO 51, 159, 에베소서주석 1:22): “... non esse nudum honorem, quod caput Ecclesiae constitutus est, quia simul plena rerum omnium potestas et administratio illi sit commissa.”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모든 것을 우리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⁴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칼빈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적용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비유를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적 통치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통치권이 그분께만 위임된다는 것은 세상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영적 통치권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통치권들은 정치적이다.”⁴¹⁾

칼빈에 의하면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창조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⁴²⁾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는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에 기초되어 있으며 그분의 건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완성된다.⁴³⁾ 성격상 “그리스도의 나라는 불가시적이요, 외적인 것이 아니기”(regnum Christi invisibile, et non externum) 때문에 세상의 외적인 통치방식들과 집권 규율들과 구별된다.⁴⁴⁾ 하지만 참된 조국인 하늘 나라를 대망하는 신자의

40) COE 16, 176 (= CO 51, 160. 에베소서주석 1:23) “... ipsum [= Christum] omnia in omnibus implere. Quod ergo vult impleri et perfectus quodammodo esse in nobis, id non accidit ex defectu vel inopia, quum omnia ipse perficiat tam in nobis quam in creaturis omnibus.”

41) CO 49, 432 (고린도전서주석 8:6): “Caeterum quod ei soli dominium tribuitur, non eo spectat ut aboleantur mundi ordines. Paulus enim de spiritali dominio hic loquitur: dominia autem mundi sunt politica.”

42) CO 47, 404 (요한복음주석 18:36): “Sed proprie loquendo regnum Dei in nobis habitans in mundo peregrinatur, quia prorsus diversa est eius conditio.”

43) CO 47, 404 (요한복음주석 18:36): “Regnum enim Christi, ut spirituale est, in doctrina et virtute spiritus fundari oportet. Eodem etiam modo perficitur eius aedificatio.”

44) 참조. CO 40, 605 (다니엘주석 2:44-45).

지상적인 삶은 순례자와 다르지 않는데, 이런 순례자를 위해 시민정부가 필수적인 조력수단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이것이 바로 칼빈이 교회의 특징을 그리스도의 불가시적 나라로 규정하는 중요한 원리인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칼빈의 수많은 글 속에 기독교 국가 내지는 기독교 사회를 의미하는 “기독교 단체”(corpus christianum)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⁴⁶⁾ 왜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신비한 몸”(corpus Christi mysticum unum)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왕들의 나라들

세상 “정치”(politica)는 “이 세상의 요소들에 속한”(sub elementis huius mundi) 필수적인 것이다.⁴⁷⁾ 처음부터 칼빈은 두 종류의 통치를 구분하는데, 이 둘은 각각 서로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⁴⁸⁾ “하나는 영적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섬김을 익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시민적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 존중되어야 하는 인간적이고 시민적인 의무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영적 권력과 현세적 권력이라 불려왔는데, 부

45) 참조. OS V, 473 (= CO 2, 1094. 기독교강요 IV.20.2.): “Sin ita est voluntas Dei, nos dum ad veram patriam aspiramus, peregrinari super terram: eius vero peregrinationis usus talibus subsidiis indiget: qui ipsa ab homine tollunt, suam illi eripiunt humanitatem.”

46) J. Bohatec, *Calvins Lehre*, 630.

47) OS I, 91 (= CO 1, 77. 기독교강요 1536).

48) 참조. S. Schoch, *Calvijn's beschouwing over kerk en staat* (Groningen: J.B. Wolters, 1902), 81sq. 여기서 스펀호흐(Schoch)는 교회와 정부 상호간의 독립성에 대한 칼빈의 원리가 교황주의와 영주주의(교회 지배권이 영주에게 속한다)에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세례파의 분리주의와 루터교회의 황제교황주의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칼빈이 이해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서울: 그리스, 2009);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13-239.

적합한 명칭들은 아닌 듯하다. 전자와 같은 통치는 영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와 같은 통치]는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즉 먹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규정하는 것과도 관련된 것인데, 이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명예롭고 절도 있게 살도록 한다. 즉 전자는 내적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후자는 다만 외적인 행동들을 통제할 뿐이다. 하나는 영적인 나라로,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나라로 불러야 하리라. 또한 이 둘은 항상 각기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하나를 다룰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떼내어서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마치 다른 왕과 다른 법이 통치하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⁴⁹⁾ 칼빈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로서의 교회 통치는 시민에 의한 지배체제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⁵⁰⁾

49) OS I, 232-233 (= CO 1, 204, 기독교강요 1536): “...duplex esse in homine regimen: alterum spirituale, quo conscientia ad pietatem et cultum Dei instituitur, alterum politicum, quo ad humanitatis et civilitatis officia, quae inter homines servanda sunt, homo eruditur. Vulgo appellari solent, iurisdictio spiritualis et temporalis; non improprie nominibus, quibus significatur priorem illam regiminis speciem ad animae vitam pertinere, hanc autem, in his, quae praesentis vitae sunt, versari; non quidem in pascendo aut vestiendo, sed in praescribendis legibus, quibus homo inter homines vitam honeste modesteque exigit. Nam illa in animo interiori sedem habet, haec autem externos mores duntaxat componit. Alterum vocare nobis liceat regnum[233] spirituale, alterum regnum politicum. Haec autem duo, ut partiti sumus, seorsum singula dispicienda, et dum alterum tractatur, avocandi avertendique ab alterius cogitatione animi. Sunt enim in homine veluti mundi duo, quibus et varii reges et variae leges praeesse possunt.”; OS IV, 294 (= CO 2, 622sq. 기독교강요 III. 19. 15.)

50) OS I, 258-259 (= CO 1, 228, 기독교강요 1536): “... spirituale Christi regnum et civilem ordinationem, res esse plurimum sepositas.” 참조. E. Doumergue, *Calvin V*, 404-408. 비교. OS I, 259 (= CO 1, 229, 기독교강요 1536): “Nam illud [= spirituale et internum Christi regnum] quidem initia coelestis regni quaedam iam nunc super terram in nobis inchoat, et in hac mortali evanidaque vita immortalem et incorruptibilem beatitudinem quodammodo auspicatur. At huic [= civile regimen] destinatum est, quamdiu inter homines agemus, vitam nostram ad hominum societatem componere, ad civilem iustitiam mores nostros formare, nos inter nos conciliare, communem pacem ac tranquillitatem alere ac tueri.” 1559년도 『기독교강요』 라틴어 최종판에는 정부의 다른 의무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종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경건 교리와 교회 상태를 방어할”(externum Dei cultum fovere et tueri, sanam pietatis doctrinam et Ecclesiae statum defendere) 의무이다. 참조. OS V, 473 (= CO 2, 1094, 기독교강요 IV. 20. 2.)

“왜냐하면 교회는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칼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강요하는 어떤 권력도 없으며 체포권도, 다른 처벌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죄지은 사람이 강제로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다만 자발적인 처벌에 의해 회개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부가 소유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교회에 의해 완수되는 것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⁵¹⁾ 이런 점에서 시민 정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양심”(libera conscientia coram Deo)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⁵²⁾

비록 시민적이고 외적인 통치가 영적이고 내적인 나라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그 둘이 전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⁵³⁾ 왜냐하면 영적 통치로서의 교회와 시민적 통치로서의 정부는 둘 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호하는 신적인 기관이요 수단이기 때문이다.⁵⁴⁾ 그러므로 이 두 통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호하고 확고히 세우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⁵⁵⁾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속에 이중적인 통치”(duplex in homine regimen), 즉 목자들을 통한 영적 통치와 세상 정부들을 통한

51) OS V, 199 (= CO 2, 894, 기독교강요 IV.11.3.): “Neque enim ius gladii habet Ecclesia quo puniat vel coerceat, non imperium ut cogat, non carcerem, non poenas alias quae solent infligi a magistratu. Deinde non hoc agit, ut qui peccavit, invitus plectatur, sed ut voluntaria castigatione poenitentiam profiteatur. Est igitur longe diversa ratio: quia nec quicquam sibi sumit Ecclesia quod sit proprium magistratus, neque hoc efficere potest magistratus quod ab Ecclesia peragitur.”

52) 참조, CO 45, 601 (마태복음주석 22:21).

53) OS I, 259 (= CO 1, 229, 기독교강요 1536): “Verum ut distinctum istud regiminis [civilis] genus a spirituali illo et interno Christi regno nuper monuimus: ita nec quicquam pugnare sciendum est.” OS V, 473 (= CO 2, 1093sq. 기독교강요 IV.20.2.).

54) 참조, R. Nürnberger, *Die Politisierung des französischen Protestantismus*, 14: “Für ihn [= Calvin] haben Kirche und Obrigkeit gemeinsam zu arbeiten: sie sind die äußeren Mittel, durch welche uns Gott zu Christi Gemeinschaft beruft und in derselben erhält.”

55) 참조, E. Doumergue, *Calvin V*, 408-415.

시민적 통치를 함께 허락하기를 원하신다.⁵⁶⁾ “왜냐하면 어떤 도시나 마을도 정부와 [시민] 정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영적 정치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이 영적 정치는 시민 [정치]와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돕고 발전시키는 것이다.”⁵⁷⁾ “하지만 정부가 처벌과 위협으로 교회를 장해물들로부터 정화해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말씀의 사역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고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연합해야 한다.”⁵⁸⁾

칼빈에 따르면 시민 정치는 단지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 생활의 보편성만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막고 신성모독과 진리모독을 근절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공적 국면들을 제공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종교 생활의 특수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⁵⁹⁾ 이런 점에서 칼빈은 통치자들, 즉 영주와 왕을 “하나님의 종”(minister Dei)이라 부른다.⁶⁰⁾ 그래서 그는 “평온한 삶”(tranquilla vita)과 “경건의 보존”(pietatis conservatio)과 “공공의 품위 보호”(cura publica honestatis)를 시민 정치의 삼대 열매로 제시한다.⁶¹⁾ “왕들이 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때 그들은 종교의 보호자들이요 교회의 주

56) 참조. CO 7, 89: “Et nostre Seigneur Iesus approuvera les uns et les autres [= les Roys et les Pasteurs spirituelz].”

57) OS V, 195 (= CO 2, 891. 기독교강요 IV.11.1.): “Quemadmodum enim nulla urbs nullusve pagus sine magistratu et politia stare potest: sic Ecclesia Dei … sua quadam spirituali politia indiget: quae tamen a civili prorsus distincta est, eamque adeo nihil impedit aut imminuit, ut potius multum iuuet ac promoveat.”

58) OS V, 199 (= CO 2, 895. 기독교강요 IV.11.3.): “At quemadmodum magistratus puniendo et manu coercendo purgare debet Ecclesiam offendiculis: ita verbi minister vicissim sublevare debet magistratum, ne tam multi peccent. Sic coniunctae debent esse operae, ut altera sit adiumento alteri, non impedimento.”

59) 참조. OS I, 260 (= CO 1, 230. 기독교강요 1536); OS V, 473sq (= CO 2, 1094. 기독교강요 IV.30.3.).

60) 참조. OS I, 23 (= CO 1, 11. 프랑수와 1세에게 보낸 칼빈의 편지, 1535); OS I, 261 (= CO 1, 231. 기독교강요 1536).

61) 참조. CO 52, 267 (디모데전서주석 2:2).

방장들이다. 그러므로 매사에 왕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에게 제공된 검을 사용하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칼빈이 기독교 정치를 인정한다는 점인데, 그가 인정하는 기독교 정치란 하나님의 법에 의존하는 참된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신성모독을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³⁾

기독교 정치(Christiana politia)

칼빈에 따르면 시민 정치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법의 보호자요 파수꾼인 정부, 정부가 다스리는 원칙으로서의 법, 그리고 법에 의해 지배되고 정부에 순종하는 백성!”⁶⁴⁾ “하나님께서서 나라들에는 왕들을, 자유 도시들에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든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⁶⁵⁾ 칼빈의 생각에는 모든 정부가 차별 없이

62) CO 43, 135 (아모스주석 7:10-13): “... reges si fungantur suo officio esse et patronos religionis, et nutritios ecclesiae, ... Hoc ergo summopere requiritur a regibus, ut gladio, quo praediti sunt, utantur ad cultum Dei asserendum.” 참조, OS I, 264 (= CO 1, 233, 기독교강요 1536).

63) 참조, OS I, 260 (= CO 1, 230, 기독교강요 1536): “Siquidem nihilo hic magis, quam antea, leges de religione ac Dei cultu hominibus suo arbitrio ferre permitto, cum politicam ordinationem probo, quae in hoc incumbit, ne vera religio, quae Dei lege continetur, palam publicisque sacrilegiis impune violetur ac conspurcetur.”; OS V, 474 (= CO 2, 1094, 기독교강요 IV.20.3.). 비교, S. Schoch, *Calvin's beschouwing over kerk en staat*, 119: “Het Calvinistisch ideaal blijft echter onveranderlijk: de verwezenlijking van den Godstaat op aarde!”

64) OS I, 260 (= CO 1, 230, 기독교강요 1536): “Sunt autem tres: magistratus, qui praeses est legum ac custos; leges, secundum quas ipse imperet; populus, qui legibus regatur et magistratui pareat.”; OS V, 474 (= CO 2, 1095, 기독교강요 IV.20.3.).

65) OS I, 263 (= CO 1, 233, 기독교강요 1536): “Nam si illi visum est, reges regnis praeficere, liberis civitatibus senatus aut decuriones: quoscumque locis praefecerit, in quibus degimus, nostrum est iis nos morigeros ac obedientes praestare.”; OS V, 479 (= CO 2, 1099, 기독교강요 IV.20.8.). 비교, OS I, 416 (= CO 22, 73, 라틴어판, CO 5, 353sq).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⁶⁶⁾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⁷⁾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은 자신의 왕들과 영주들과 정부들과 세워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지배를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의 법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⁶⁸⁾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대사들”(Dei ministri ac legati)로 존경 받아 마땅한데, 그들의 “권세”(iurisdictio)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⁶⁹⁾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법은 사회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줄이다.⁷⁰⁾ 칼빈은 모세의 정치만을 기독교 정치를 위한 합법적이고 가치 있는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치 개념을 거부한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기독교 법의 원리를 모세의 신적 도덕법에서 차용한다. 왜냐하면

66) OS I, 263 (= CO 1, 232. 기독교강요 1536): “Praeterea, inter ipsos magistratus tametsi variae sunt formae, nullum tamen discrimen hac in parte est, quin pro Dei ordinacionibus suscipiendae a nobis omnes sint. Nam et omnes simul complectitur Paulus, cum ait (Rom. 13): non esse potestatem nisi a Deo,, ut diversis politiiis regiones variae administrarentur.”; OS V, 477sq (= CO 2, 1097sq. 기독교강요 IV.20.7.).

67) OS V, 474 (= CO 2, 1095. 기독교강요 IV.20.4.): “... , divina autoritate praeditos esse, ac omnino Dei personam sustinere, cuius vices quodammodo agunt.”; OS I, 261 (= CO 1, 230. 기독교강요 1536).

68) OS I, 52 (= CO 1, 41. 기독교강요 1536): “Hac ratione populus suos reges, principes, magistratus, et alios sibi praefectos, in honore habeat, eorum dominationem aequo animo ferat, legibus et iussis pareat, nihil detrectet quod sub Dei voluntate exequi possit (Rom. 13. 1 Petr. 2. Tit. 3).” 참조. OS I, 425 (= CO 9, 700 = CO 22, 94).

69) OS I, 273 (= CO 1, 242. 기독교강요 1536); OS V, 493 (= CO 2, 1110. 기독교강요 IV.20.22.).

70) OS I, 267 (= CO 1, 237. 기독교강요 1536): “...leges, validissimi rerum publicarum nervi, ...”; OS V, 486 (= CO 2, 1104. 기독교강요 IV.20.14.).

71) OS I, 268 (= CO 1, 237. 기독교강요 1536); OS V, 486 (= CO 2, 1104sq. 기독교강요 IV.20.14.).

공의 영원한 참 규칙인 도덕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믿음과 바른 경건으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섬기도록 명령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바른 사랑으로 품어주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다. 이 도덕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⁷²⁾ 그러므로 시민법도 역시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입법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형식적으로는 다양하겠지만 동일한 원리를 따를 수 있다.⁷³⁾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을 인도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기독교 국왕”(Roy Chrestien)과 같은 사람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de Royaume de Iesus Christi)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⁷⁴⁾ “그러므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주들이 참으로 기독교인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 국가 안에서 그와 같은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⁷⁵⁾ 칼빈에 따르면 세상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칼을 가장 현명하게 휘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은사를 받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그런 정치가라고 해서 스스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영민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

72) OS I, 268 (= CO 1, 237, 기독교강요 1536): “Lex itaque moralis ... cum duobus capitibus contineatur, quorum alterum pura Deum fide et pietate colere, alterum sincera homines dilectione complecti simpliciter iubet, vera est aeternaque iustitiae regula, gentium omnium ac temporum hominibus praescripta, qui ad Dei voluntatem vitam suam componere volent.”; OS V, 487 (= CO 2, 1105, 기독교강요 IV, 20, 15.)

73) OS I, 269 (= CO 1, 238, 기독교강요 1536): “... leges, quae tamen ad perpetuam illam charitatis regulam exigantur, ut forma quidem varient, rationem habeant eandem.”; OS V, 487 (= CO 2, 1105, 기독교강요 IV, 20, 14.)

74) CO 14, 342 (영국왕 에드워드 6세에게 보낸 칼빈의 1552년 7월 4일자 편지).

75) CO 7, 82: “Concluons donc, que les Princes servans à Dieu peuvent bien estre Chrestiens, veu que nostre Seigneur leur donne une telle preeminence en la Chrestienté.” 참조, CO 55, 465 (베드로후서주석 2:10): “...: scimus tamen prae aliis excellere magistratum functionem: quia Dei vices gerunt in gubernando humano genere.”

없이는 다스리는 일에 무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그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라 불리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지 않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유지하신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으면 통치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⁶⁾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때때로 세상의 권력가들과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교회 일을 위해”(in rebus Ecclesiasticis)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리고 교회 치리를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⁷⁷⁾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권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교리에 있어서”(in doctrina)도 “모든 영적인 지배”(in toto spirituali regimine)에 있어서도 “최고의 재판관들”(summi iudices)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속 지배자들을 칼빈은 사탄적인 견해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단정하면서 어떤 세속 통치자도 자신의 권력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⁷⁸⁾ 오히려 “선한 황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⁷⁹⁾ 세상 통치자들에게 종교를 보호해야

76) CO 43, 319-320 (미가주석3:1-3): “Nam scimus etiam sine Dei spiritu acutissimos homines fore prorsus ineptos ad regendum. Neque enim vocatur frustra spiritus Dei liberalis, qui principatum obtinet in mundo: nam ita mone[320]mur, etiam qui videntur praecipuis dotibus esse praediti, tamen inutiles fore ad gubernandum, nisi adsit Dei spiritus.”

77) OS V, 211 (= CO 2, 904. 기독교강요 IV.11.15.). 참조. L. Cardauns, *Die Lehre vom Widerstandsrecht des Volk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41: “Die Obrigkeit fasst Calvin nicht allein als ein bürgerliches, man kann wohl sagen, in erster Linie als ein religiöses Amt.”; M.-E. Chenevière,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Genève: Labor, 1937), 234-242 & 265-271.

78) 참조. CO 43, 135 (아모스주석 7:10-13).

79) OS V, 200 (= CO 2, 895. 기독교강요 IV.11.4.): “Imperator bonus intra Ecclesiam, non supra Ecclesiam est.” 이 문장 인용의 출처는 암브로시우스(Ambrosius)의 저술이다.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곧 그들이 교회 위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신앙적이고 훌륭한 통치자일수록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왜냐하면 황제들과 정부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영적 재판권이 즉시 철폐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영적 재판권이 시민적 재판권을 침해하거나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즉 만일 정부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복종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복종의 최종 국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교회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⁸⁰⁾ 여기서 칼빈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란 교회와 국가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상호 복종의 관계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지상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세상 통치자들의 의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 지도자들 즉 “영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호하는 길은 부분적으로는 외적인 치리를 공고하게 세우는 것이요, 부분적으로는 불경건한 자들을 대항하는 자신들의 [교회] 보호권을 교회에 넘겨주는 것이다.”⁸¹⁾ 여기서 외적인 치리는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한 처벌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요, 불경건한 자들을 대항하는 보호권을 교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교회의 독립적인 치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80) OS V, 200 (= CO 2, 895. 기독교강요 IV.11.4.): “Neque enim ubi coeperunt Imperatores et magistratus Christo nomen dare, protinus abrogata est spiritualis iurisdictionis: sed ita duntaxat ordinata nequid civili derogaret, aut cum ea confunderetur. Et merito; non enim magistratus, si pius est, eximere se volet communi filiorum Dei subiectione, cuius non postrema pars est, Ecclesiae ex verbo Dei iudicanti se subiicere: ...”

81) 참조. CO 47, 404 (요한복음주석 18:36): “... regnum Christi tueantur principes: partem dum externam disciplinam constituunt, partim dum suum patrocinium commodant ecclesiae contra impios.”; CO 13, 72 (에드워드 쉐이머어에게 보낸 칼빈의 1548년 10월 22일자 편지): “Ainsi combien que les edictz et statutz des princes soient bonnes aydes pour avancer et maintenir lestat de la chrestiente, si est ce toutes-fois que Dieu veult declairer sa vertu souveraine en ce glayve spirituel de sa parole, quand elle est annoncee par les pasteurs.”

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처벌권과 구별되는 교회 치리권의 독립에 대해 칼빈은 시종일관 주장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제네바에서 온전히 성취할 수는 없었다.

*정부의 의무와 백성의 의무, 그리고 교인의 의무

칼빈에 의하면 권력과 권세를 집행하는 모든 지배자들은 자신들에게 검을 위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권리를 제공하고 공적인 평화와 안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백성 가운데 선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베풀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만물을 지배하되 자신들의 통치 장부를 최고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넘겨주어야 할 종의 신분임을 칼빈은 상기시켜준다.⁸²⁾ 즉 정부들은 자신의 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자신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자신들의 통치 장부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⁸³⁾

반면에 백성들은 위임된 직무를 선하게 신앙적으로 잘 완수하는 영주들의 권세, 즉 그 지역의 최고 통수권자들의 권세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 즉 영주들의 직무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에도 종속된다.⁸⁴⁾

82) OS I, 52 (= CO 1, 41. 기독교강요 1536): “... illi plebis suae curam [magistratus] sustineant, ius reddant, publicam pacem ac tranquillitatem conservent, bonis sint praesidio, malos coerceant: sic omnia administrent, quasi supremo regi ac iudici Deo functionis suae rationem reddituri (Deut. 17, 2 Paral. 19).”; OS III, 385 (= CO 2, 299. 기독교강요 II, 8.46.).

83) CO 49, 251 (로마서주석 13:4): “Neque effraeni potentia praediti [magistratus] sunt, sed quae subditorum saluti sit obstricta. Denique Deo et hominibus in suo principatu sunt obligati. Nam quia a Deo legati sunt, et negotium eius agunt, rationem illi sunt reddituri.”

칼빈에 의하면 비록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백성은 그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악한 통치자를 치료하는 것은 백성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들의 마음도, 나라를 바꾸는 일도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백성은 단지 그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⁸⁵⁾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나님 한 분 만이 왕을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⁸⁶⁾ 또한 그는 무질서와 혼란만 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보다 차라리 독재가 훨씬 더 낫고 견딜만하다고 생각한다.⁸⁷⁾

제네바 개혁가는 신자가 교회에 순종하는 것과 백성이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구분한다. “시민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적이고 시민적인 권세의 지배가 아무리 문란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적인 통치가 타락한다면 경건한 자들의 양심은 해방되어 부당한 권세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거룩에 대해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원수들이 사제라는 호칭 뒤에 자신을 숨기고 구원의 교리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질서를 위해 세우신 통치권을 사유화(私有化)한다면!”⁸⁸⁾ 백성으로서 신자는 타락한 세상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없지만 교인

84) OS I, 275 (= CO 1, 243. 기독교강요 1536): “... , ut non eorum modo principum imperio subditi simus, qui probe et qua debent fide munere suo defunguntur, sed omnium qui quoquomodo rerum potiuntur, etiamsi nihil minus praestent, quam quod ex officio erat principum.”; OS V, 495 (= CO 2, 1112. 기독교강요 IV.20.25.).

85) OS I, 278 (= CO 1, 246-247. 기독교강요 1536): “... , non nostrum esse huiusmodi malis mederi; hoc tantum esse reliquum, ut Domini opem imploremus, cuius in manu sunt[247] regum corda, et regnorum inclinationes (Prov. 21).”; OS V, 500 (= CO 2, 1115. 기독교강요 IV.20.29.).

86) 참조. OS I, 276 (= CO 1, 244. 기독교강요 1536); OS V, 496 (= CO 2, 1112. 기독교강요 IV.20.26.).

87) 참조. CO 40, 657 (다니엘주석 4:10-16): “Ideo dixi tyrannidem meliorem esse, et posse aequius tolerari quam anarchiam, ubi scilicet nullum est imperium, nemo est qui praesit et contineat reliquos in officio.”

으로서 신자는 타락한 교회 지도자에게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칼빈에 따르면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요 조력자들이므로 아무도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반기를 들 수 없다.⁸⁹⁾

“개인”(privati homines)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직 복종하고 인내하라는 것뿐이다.⁹⁰⁾ 그렇다면 백성으로서 신자가 악한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백성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지만 그 복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치는데 이것이 칼빈의 저항 이론의 핵심이다.⁹¹⁾ 예컨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⁹²⁾ 그렇다면 이런 명령 불복종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칼

88) CO 48, 505–506 (사도행전주석 23:5): “... inter civiles magistratus et ecclesiae[506] praesules aliquid esse discriminis. Quamvis enim terreni vel civilis imperii confusa sit perversaque administratio: Dominus tamen subiectionem vult salvam manere. Sed ubi spirituale regimen degenerat, solvuntur piorum conscientiae, ne iniustae dominationi pareant: praesertim si impii et profani sanctitatis hostes sacerdotii titulum falso ad evertendam salutis doctrinam praetexunt sibi que dominationem arrogant qua Deus ipse in ordinem cogatur.”

89) OS I, 425 (= CO 9, 700 = CO 22, 94–95): “... , quil nous les fault reputer comme vicaire[95] et lieutenans de Dieu, ausquelz on ne puisse nullement resister, synon en resistant a Dieu mesmes, ...” 비교. CO 49, 249 (로마서주석 13:1): “Ratio cur debeamus subiecti esse magistratibus, quod Dei ordinatione sunt constituti. Quod si ita placet Domino mundum gubernare, Dei ordinem invertere nititur adeoque Deo ipsi resistit quisquis potestatem adspernatur: quando eius qui iuris politici autor est providentiam contemnere, bellum cum eo suscipere est.”

90) OS I, 279 (= CO 1, 247. 기독교강요 1536): “... , quibus [= nobis] nullum aliud quam parendi et patiendi datum est mandatum.”; OS V, 501 (= CO 2, 1116. 기독교강요 IV.20.31.).

91) 칼빈의 저항권 개념에 관하여서는 다음 참조. L. Cardauns, *Die Lehre vom Widerstand-srecht des Volks*, 42–46;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 La pensée ecclésiastique et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Éditeurs, 1917), 486–512; J. Bohatec, *Calvin und das Recht* (Westfalen: Buchdruckerei u. Verlagsanstalt, 1934), 133–206; idem,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 (Breslau: Scientia Verlag Aalen, 1968), 75–91 & 247–263.

빈은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나 왕을 처벌하고 폐위시키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종들인 “명백한 보복자들”(manifesti vindices)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한다.⁹²⁾ 그래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만일 왕들의 자유재량을 억제할 “백성의 정부관리자들”(populares magistratus)이 있다면 그들은 왕들의 격렬한 방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 “보호자들”(tutores)로 세워졌기 때문이다.⁹⁴⁾

결론

칼빈은 교회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자신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92) OS I, 280 (= CO 1, 248. 기독교강요 1536): “... (Act. 4): Obendiendum Deo potius quam hominibus, ...”; OS V, 502 (= CO 2, 1118. 기독교강요 IV.20.32.); OS I, 417 (= Co 22, 74. 라틴어판. CO 5, 354). 참조. OS I, 386 (= CO 22, 42. 라틴어판. CO 5, 330): “Mais il fault aussi noter cecy incidemment, cest quil ne nous est pas commande de leur obeir sinon en Dieu. Paurtant il ne fault pas pour leur complaire transgresser la Loy du Seigneur, ...”; M. -E. Chenevière,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350-356.

93) OS I, 278 (= CO 1, 247. 기독교강요 1536); OS V, 500 (= CO 2, 1115. 기독교강요 IV.20.30.).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는 “명백한 보복자”라는 이 개념은 시민들의 무력 저항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개념은 이미 1539년판 『기독교강요』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칼빈이 초기에는 폭군에 대해 소극적 불순종을 주장했지만 결국 말년에는 시민의 적극적 저항과 무력 저항을 지지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칼빈의 글 어디에도 시민의 무력 저항을 지지하는 문구는 없다. Contra 양낙홍, 『개혁주의 사회 윤리와 한국 장로교회』(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37-42. 칼빈의 저항권 이론을 공정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236: “국가에 대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저항권은 칼뱅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칼뱅 이후 칼뱅주의의 소산이다.”

94) OS I, 279 (= CO 1, 248. 기독교강요 1536); OS V, 501 (= CO 2, 1116. 기독교강요 IV.20.31.). 참조. H. Scholl, *Reformation und Politik*, 64.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저항권은 결코 개인적인 것도 시민적인 것도 아니며, 오직 정부직분적이다. 즉 왕이나 상급정부의 관리자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개혁하기 위해 정치적인 반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신하들이나 하급정부 관리자들의 공적인 직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저항권은 오직 공적으로 임명된 정부의 직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의 나라들과 분리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이다. 이 영적인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구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가치와 우수성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정권들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나다.⁹⁵⁾

영적인 나라로서 교회의 지상적인 삶은 나그네와 같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그들의 지상 생활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의 극장인 이 세상을 돌보신다. 성경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것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모든 통치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칼빈의 “기독교 정치”(christiana politica)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에 근거한 사상이다. 칼빈은 세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통치 방법은 신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기독교적 통치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세상 정부들이 공적인 죄를 처벌하고 평화와 안식을 보호해야 할 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상숭배자들과 신성모독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런 책임을 흔히 종교적 임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개혁가의 말에 따르면 세상 정부에는 어떤 영적인 권세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검인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만 맡기셨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만 그 영적 권세가 있다. 이 영적인 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제네바 개혁가는 세상 정부와 교회 둘 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서로에게 복

95) CO 8, 441: “... , qu'il n'y a que la seule Eglise de Dieu qui surmonte en dignité et excellence tous les royaumes et gouvernemens de la terre, ...”

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둘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